2020 신년메세지Ⅲ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도' 합니다.

[로마서 12:2]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1.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

인생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맞는 말이다. 할 수 있는 일은 하면 된다. 문제는 할 수 없는 일 앞에 있을 때이다. 인생은 할 수 없는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실재적으로 달라진다. 그런데 사실상, 할 수 없는 일 앞에 설 때 사람은 비로소 초월적 존재를 위한 공간이 생긴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다. 지금 전 세계의 소식을 보라. 얼마 전 있었던 호주의 산불을 보라. 그 엄청난 산불 앞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최악의 재앙이라는 호주 화재를 위해 날아오는 소식은 기도 요청뿐이다.

역사의 변곡점을 보라. 사실 사람이 새로운 역사를 연 것처럼 보인다. 사람의 힘은 바벨탑을 시작으로 지속해서 내가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여기며 발전해왔다. 그러데 바벨탑과 같은 제국과 문명의 발전은 그 끝을 보였다. 아이러니한 것은 그 끝이 '자연재해'나 '흑사병'과 같은 질병 등과 같은 이유이다.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역사의 변곡점이 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세계사 (세상의 흐름)의 흐름 안에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은 함께 존재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셋팅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만나신다. 예수님 당시도 보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인가? 바리새인처럼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자기 의에 가득 찬 사람들이 아니다. 오히려 할 수 없는 일 앞에 있었던 가난한 자, 병이 있는 자, 마음이 상한 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

2. 예수님 - 할 수 없는 일 앞에 선 예수님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예수님이 삶의 모델이 되어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다. 할 수 없는 일 앞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와, 예수님의 사역과 삶 속에 너무나 선명하게 나와있다. '기도'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겟세마네 기도이다.

[마태복음 26:39]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이 생각하셔도 버거운 짐이다. 이런 마음과, 육체의 번민과, 고민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기도'이다. 기도를 통해서 마음을 '다잡으셨다'
마음을 단단히 '다잡는 일'이 필요하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다잡아지는 과정'이다. 로마서 12장 2절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일'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마음을 단단히 잡는 일이란, 앞으로 다가올 어려운 일에 대한 준비된 마음이라 할 수 있겠다. 이 마음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실재적인 힘이 된다. 하나님의 일을 보라. 갑자기 위에서 무엇이 뚝 떨어지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의 여정을 통해 '이야기'를 만드신다. 그 이야기가 바로 신앙의 여정이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새롭게 되는 일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세상의 풍조'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3. 기도의 정부

하나님은 이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통치하실까? 특별히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앞에서 어떻게 통치하실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정부'가 이 땅에 세워져야 한다. 그곳이 바로 '골방과 성전'이다. 먼저 골방을 생각해보자.

(1) 예후, 엘리사

이세벨의 엄청난 영향력 앞에서 엘리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두려워 떨 정도로 그 세력은 엄청났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어나갔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 답을 말씀하신다. '예후'와 '엘리사'를 세우라고 말씀하신다. 왕과 제사장을 세우는 일이다.

[열왕기상 19:16]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2) 골방

[열왕기하 9:1-3]
1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2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3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하나님은 평범한 군대장관이었던 예후를 찾아 왕의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신다.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시대와 세대는 이세벨의 시대와 같이 쉽지 않다.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새 일'은 어디에서 준비 되어지는가? '골방'이다. 이제, 골방으로 들어가야 한다. 사도행전의 새 시대, 성령이 오셔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그 장소가 '다락방-골방'이다. 은밀한 곳이다.

* 다니엘의 골방

[다니엘 6:10]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두려워하는지 아는가? 마음의 골방이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정말 안전한 곳이 없기 때문이다. 다니엘에게는 '골방'이라는 안전한 곳이 있었다. 다니엘의 정부는 바로 골방이다.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장소가 '골방'이다.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고 한다.

'골방'을 확보하라. 하나님은 위기의 때 골방을 정부로 사용하신다. 골방에서 무너졌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재건하신다. 골방에서 마음이 다잡아지고 정렬이 일어난다. 다니엘의 기도를 보라.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고 되어있다. 그 감사함은 환경과 상황을 이미 마음으로 이긴 초월적 감사이다. 그 골방이 '하마콤(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장소)'이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될 수 있는 '하마콤'만 있으면 된다.

(3) 성전

두 번째 통치의 장소는 '성전'이다. 성전은 하나님의 전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 구약에 보면 이방 민족에게 성전이 회파될 정도의 타격을 받을 때가 있다. 그때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했을 때를 말한다. 그 결과 땅을 빼앗기고, 포로가 되고, 성전을 잃는다. 그들이 성전에서 했던 일은 하나님을 예배했던 일이다. 그때 드려진 예배가 '이사야 56:7'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언약을 곡조에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있는 곳이다.

그 성전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소원을 들으셨다. 기도에 응답하셨다. 이런 친밀한 기도가 있었던 성전이 종교적으로 타락했을 때 예수님은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셨고,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 되셔서 우리 안에 거하셨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된 자들이 함께 모여 떡을 떼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곳이 바로 '교회'이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도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이 땅에 그들이 함께 모이는 '교회'와 같은 실재적인 장소를 중요하게 보신다. 성전 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또 그곳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본 적이 없다.

(4) 현대 - 예배 (기도와 찬양 말씀)의 회복

성전에서의 기도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눈에 보이지 않은 성전의 회복은 눈에 보이는 성전의 회복으로 나타나야 한다. 성전의 회복은 예배의 회복을 의미한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

아버지의 집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마음 상태를 보라. 아버지의 집을 오며 날마다 설레임으로 오는 사람들을 생각해보라. 눈에 보이는 성전을 사랑하라. 아껴라. 소중히 여겨라. 바로 그곳이 이 땅을 다스리는 '하늘의 정부'가 있는 곳이다.

*** 솔로몬의 기도**

[역대하 6:32-33]
32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33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다. 약속으로 세워진 성전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곳에서 통치하신다. 성전에 와서 기도하라.

2020년 받은말씀 '성전에서 기도할 때 속히 응답되리라.
천국의 열쇠가 그곳에 있다. 사역하는 천사들이 속히 움직이리라'

이 성전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내 한계가 하나님의 한계는 아니다'
'내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는 아니다'
'내 낙담이 하나님의 낙담은 아니다'

'기도가 답이다. 기도가 해법이다'